

대학언론의 변화를 위한 제안 :

학생 편집국장이 본 대학언론

곽 동 원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3학년, 『연세춘추』 편집국장



1. 대학언론의 위기와 변화

'90년대 이후 대학사회 내에서 대학언론의 정체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일고 있다. 과거 학생운동이 독재정권에 대항하여 구국을 외치고 있던 시절, 학생운동과 함께 대항언론으로서의 위상을 가졌던 각 대학 내의 언론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대학언론의 정체성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몇년간 전국대학생기자연합 및 각

대학 언론사들은 나름대로의 변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은 발전을 위한 전략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여겨진다.

대학언론은 과거의 찬란했던 르네상스시대를 뒤로하고 학내 구성원들에게 외면받는 언론이 되어가고 있다. 많은 대학 언론사에서 '읽히지 않고 쌓여있는 신문, 듣지 않는 방송'으로 대표되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월요일에 발행된 각 학교의 신문은 토요일이 되도록 건물 앞에 그대로 쌓여있고, 비가 내리는 날에나 가끔 이용(?)되고 있으며 교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학내 교육 방송은 인기가요를 방송하는 것으로 그 명

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독자 및 청자들에게 독점매체로서 존재하던 대학 언론은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위치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학내소식을 접하기 위해 학생들은 학보를 읽거나 방송을 듣기보다 일간지를 보거나 TV 뉴스를 시청하고 전문지를 통해 깊이있는 학술, 문화소식을 접한다. 대학언론의 위기는 언론사 내에서도 엿보인다. 매학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 학내 언론사의 경쟁률은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1:1도 넘기지 못해 필요인원을 채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기자들도 한 학기, 길게는 1년이 못 되어 반 이상이 떠나는 상황이다. 이는 과거 10: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던 '80년대와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를 실감하는 부분이다.

2. 위기의 원인

이처럼 대학언론이 위기를 맞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학내 구성원의 변화로서, 이는 사회환경의 변화와도 그 맥을 같이한다. 군부독재시대가 막을 내리고 변화된 사회환경 속에서 학내에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물적 토대가 자리잡기 시작했다. 소위 말하는 X세대들이 학내의 주요 구성원으로 등장했고, 이들은 기존의 학내언론이 강조해 왔던 정치·사회적 영역과 선동·선전보다는 좀 더 자신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 더욱 흥미를 자극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둘째, 언론사 내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학내의 물적 토대가 변화했음에도, 언론사내 변화의 필요성을 실감하

면서도 각 대학 언론사들은 이에 대한 발빠른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아니 이에 앞서, 아직 대학언론의 정체성도 확립하지 못한 채 방향만 하고 있었다. 즉, 구성원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기존의 역할, 선전·선동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대중들의 요구에 맞추어 가야 하는가 등의 기본적인 전제조차 확립하지 못한 채 탁상공론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아직도 많은 대학 언론사의 기자들은 대학언론에 대중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대중추수적인 행동이라 비난하는가 하면, 변화된 대학언론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러한 변화가 저질 대중문화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언론매체의 주인이 독자, 청자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서 선정적인 기사, 사진을 실고 있는 스포츠신문들과 같이 되어가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언론매체의 변화'와 '대항언론으로서의 대학언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착각이다. 그러나 이 두 마리의 토끼는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시대에 발맞추는 대학언론의 성공적 변화는 대학언론의 대항성을 더욱 신장시킬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사회의 변동기에 지성인이 해야 할 일은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과 비리를 비판하고 새로운 정의를 정립하는 일이다. 그러나 변동기가 지난후 도래한 안정기에 지식인이 해야 할 일은 사회의 비판이 아닌 내부의 비판에 눈을 돌려야 한다. 즉, 자신의 내부 모순을 들여다 보고 이를 새롭게 평가내릴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 안정기 지식인이 할 의무이다. 마찬가지로 '87년 6월항쟁과 '92년 항

쟁 이후 안정기로 접어든 사회의 변화 앞에서 이제까지 대중선동에 앞장서 왔던 대학 언론들도 이제 새롭게 눈을 돌려 비판의 화살을 스스로에게 돌려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대학언론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생각을 정립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 대학언론의 성공적인 변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3. 대학언론의 주인 찾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과거 우리나라 대학의 신문, 방송 및 기타 언론매체들은 선동·선전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어왔다. 이는 물론 학생들이 독재정치에 맞서 싸우던 당시의 사회상으로 볼 때, 학내의 구성원에게 새로운 이념을 알리고 무지몽매한 학생들(?)에게 진보적인 비판의식을 전해 그들의 눈을 뜨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에서 이어져 내려온 언론매체에 대한 기자들의 자세, 선동·선전·대항 언론이라는 이념 아래에서 파생되어 나온 대학 언론사의 고압적인 자세는 언론매체로부터 독자들을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금까지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던 대학 언론사의 기자들은 자신들이 언론의 주체라 생각해 왔지만,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언론사의 기자들은 언론을 전달하는 중계인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언론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대학언론의 주인은 대학을 구성하는 3주체, 다시 말하면 교수, 직원, 학생과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학교를 졸업한 동문들이다.

그리고 이에 하나를 더 한다면 '지역신문'이라는 외국 대학의 선례를 닮아가며 등장한 지역주민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학언론은 각 언론의 주체를 5주체가 아닌 1주체 혹은 3주체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각 언론사의 자체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언론의 각 주체들이 이러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수집단은 "대학언론은 학생운동권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대답하고, 학생들은 "학교행정본부의 홍보지처럼 보인다."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나의 언론매체를 두고 이러한 상이한 대답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하다. 언론사 내부에서 자사 신문, 방송의 내용을 기획, 선정하는 데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상황에 따라 행정당국만을 위한 홍보지를 만들기도 하고, 운동권 학생들만을 위한 선동자료를 만들기도 하는 이러한 혼란은 언론의 5주체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학언론의 주체는 학내·외를 두루 포함한 5주체이다. 따라서 대학언론의 모든 기획과 중심은 이들 각 언론의 주인들에게 맞춰져야 하며, 이러한 입장에서 언론사의 기자들은 더 이상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해서는 안 되고, 5주체가 원하는 언론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해야 한다.

4. 5주체를 위한 언론

각 주체들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적절한 장치가 필요하다. 먼저 요즘 각 대학언론들이 자주 실시하는 여론조사 같은 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라 할 수 있다. 배학기, 혹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방학과 같이 여유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각 주체들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 특히 각 대학언론의 기획이 대부분 방학을 이용하여 수립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학기 매체 쇄신에 관심을 가진다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움부즈맨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한편, 학내의 각종 정보와 의견을 효과적으로 듣기 위해 컴퓨터 통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신문은 안 읽어도 컴퓨터 통신은 매일 하는 요즘 학생들의 성향에 발맞추어 대학언론의 내용을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게시하고, 독자게시판 등을 통하여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언론사의 능력 강화

과거에는 대학 언론사 내부의 강압적인 분위기와 선·후배간의 엄격한 상하구조로 그 언론사의 능력이 결정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학 언론사 내부에도 구성원들의 변화로 인하여 더 이상 그러한 분위기가 통하지 않고 있으며, 또 그런 허구적인 비민주적 능력이 옳바른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제 대학의 언론사들도 그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사실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주축을 이루는 대학 언론사가 하는 일들이 현재의 상태로는 크게 무리가 되는 면이 많이 있다. 질 높은 언론을 만들어어나가기 위하여 제발할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방학기간

이 전부이다. 또한 대부분의 언론사 기자들이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과외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각 언론매체를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여기에 기자들의 대다수가 학부 1~2학년생으로 구성된다는 것도 언론의 질적 향상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요인으로 더해진다. 이와 같이 공부를 많이 하여 자기계발을 해 나가야 할 학부 1~2학년생이 극히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만드는 대학언론에 질적 향상을 크게 기대하는 것은 어찌보면 무리일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학언론의 능력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기자들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 현재 대부분 대학 언론사의 기자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수준은 형편없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한 학기 30~40만 원에서 많아야 1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에 원고료 등의 형태로 지급되는 약간의 생활비가 기자들이 받는 혜택의 전부이다. 물론 재정 수준이 다른 외국 대학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지라도 일반 언론사 기자들과 같이 학비와 생활비를 해결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의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는 외국 대학 기자들에 비하면 그 수준은 정말 형편없는 것이다. 최소한 학업과 언론사의 일 이외에 재정적인 걱정을 하지 않을 만큼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학교당국을 통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적인 문제와 함께 언론사 기자들이 시험을 보거나 학점을 받는 데 있어서 일반학생들과 차별을 두어, 학교를 위해 공헌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언론사 기

자들의 경우, 언론사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이 있는 일부 교수들의 수업을 제외하고는 일반학생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아니 때로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결과, 기자들은 일반학생보다 형편없이 낮은 학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업의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학내 언론을 위해 일하는 기자들에게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학내 보직을 맡은 교수에게 똑같은 수업시간이 배당되고, 똑같은 월급이 주어진다면 너무도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기자들의 학년이 낮고 학업량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한 언론사내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은 기자들의 능력고취를 위한 정기적인 학습과 세미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와 함께 자문인 등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물론 각 언론사에는 주간교수가 있어 이러한 일을 맡고 있으나, 더욱 전문적으로 실무를 도울 수 있는 자문인의 활용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특히 대학원생이나 해당 언론사 출신 선배들을 활용하여 학부생 기자의 학문적인 부족을 보충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각 대학신문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자체 조판을 하고 있으며, 대학 방송국에서는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고 있어 전문적인 기술을 협조해 줄 수 있는 전문인의 도입도 시급한 실정이다.

6. 편집권의 독립

각 대학 언론사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흔히 지적되는 것이 편집

권 문제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언론이 학교 총장을 발행인으로 하는 교육언론의 형태를 띠고 있어 모든 재정권 및 최종 발행권이 학교당국에 있기에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일반언론이 겪는 편집권 문제가 대정부와의 문제라면, 대학언론에서 편집권 문제는 학교당국과의 갈등이 대부분이다. 즉, 대학언론에서 편집권 문제는 학생들이 언론매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교육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해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교당국과, 이를 언론탄압이라 규정하는 학생기자들과의 대립인 것이다. 대학언론의 편집권 갈등을 눈여겨 볼 때, 언론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가하는 학교측의 처사가 모두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교육기관을 배경으로 하는 언론에 대해 교육적 효과를 생각하는 것도 일면 타당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당국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위와 같은 기본 패러다임과는 크게 다른 일들이 일어났던 예를 흔히 볼 수 있다. 정권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학교 이미지에 흠이 가지않게 하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있어왔던 편집권 탄압으로 대학언론에서 이 문제는 언제나 골칫거리가 되어왔다. 특히 이 문제는 '96년 '한총련 사태'를 기점으로 각 대학의 언론이 발간정지 및 배포정지를 당함으로써 다시 한번 대학언론의 고질적인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최근 편집권 문제의 특징은 과거 이념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것과는 달리, 학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게재하는 기사가 나갈 경우, 학교당국과 기자들은 다시 한번 명분 싸움을 시작한다. 총장의 임명으로 언론사를 책임지는 주간교수는 대개 당

초 맡겨진 업무보다는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 대학 언론사에서 한 식구이어야 할 기자들과 주간교수의 사이는 서로 배타적으로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전검열 등의 내부 분열로 인하여 대학 내 기자들은 사기를 잃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의 질적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편집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언론사가 재정적·행정적으로 학교당국으로부터 독립하는 일이지만, 우리나라 대학 언론의 상황에서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의 현실적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당국과 학생기자들 사이에 편집권에 대한 올바른 타협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타협은 기자도 학교당국도 아닌 대학언론의 5주체, 즉 학생, 교수, 직원, 동문, 지역주민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언론의 사전검열과 삭제 같은 형태의 방법은 지양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평가는 그 기사를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맡겨야 한다. 언론매체의 내용이 독자, 청자의 정보력 향상에 정말 필요한 내용이었는지는 그들이 판단할 몫이다. 그 내용이 학교에 불리한 내용이라 하여 삭제하려 한다면 불필요한 내용도 무조건 실으려고 하는 기자들의 행동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이렇듯 언론에 대한 가치평가가 언론의 주체에게 맡겨질 때 편집권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에서 편집권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언론은 더 이상 공정성, 신뢰성,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둔 대중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리고 언론이 체 구실을 하지 못할 때, 그 언론을 포함한 집단의 발전도 기대하기 힘든 것이다. 따라

서 대학언론의 편집권 보장은 학교 발전과 비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대학언론의 모든 주체가 확실히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7. 튼튼한 재원의 확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언론은 자본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원고지 뭉치와 펜 또는 최소한의 오디오 시설만 갖추어지면 운영될 수 있었던 대학언론도 이제는 자본의 부족으로 발전의 한계를 겪는 벽에 부딪치고 있다. 대학신문의 경우에는 최근 몇 년 사이 자체 조판의 길로 접어들고 있으며 방송의 경우에도 텔레비전 방송이 몇몇 대학에서 시작되고 있어, 이러한 형태의 언론사를 운영하는 데는 기존 일간지와 같은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자체조판에 필요한 수백만 원대의 매킨토시 컴퓨터와 수천만 원대의 방송 기기를 확보하는 것은 교육기관이라는 한정된 틀 속에 위치해 있는 대학언론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언론의 재원이라고 해야 매학기 학생들의 등록금에 포함되어 나오는 일정금액과 광고수익으로 벌어들인 자금이 전부이다. 특히 대학언론의 광고비는 단가가 매우 싸므로 이를 가지고 변화하는 시대에 대학언론이 맞춰 갈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하기는 무척 어려운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 대학언론도 이전보다 질 높은 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재원의 필요가 절실하다. 그리고 이러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사실 지금까지 대학 언론사의 기자들, 아니

이를 포함한 대부분 대학생들의 경우, 대학 언론과 풍족한 자금은 서로 병행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왔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광고를 게재하여, 여유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대학언론에 대해 ‘부르주아적’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여가며 손가락질한 것이, 그리고 기자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어려운 경제상황도 당연한 일이라 자위하며 지내던 것이 우리 대학 내의 모습이 아닌가.

대학언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측의 더욱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기업이 아닌 학교가 그리 큰 재원을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통해 번 자금 중 1퍼센트이건 2퍼센트이건 일정량의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대학언론의 중요성, 언론발전에서 재원 확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경제사정이 그리 넉넉지 못한 학내에서 학외로 눈을 돌려 학교 동문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또한 최근 지역사회와 대학의 관계가 강조되고 있고 몇몇 대학언론에서도 지역소식란을 신설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 지역주민들에게 후원금을 받고, 지역의 광고 등을 보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8. 맺는 말

‘대학언론이 변해야 한다.’는 명제는 이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과거, 선배들이 사용하던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여 언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숙고해 보아야 할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과거의 전통, 대사회적인 대항언론으로서의 성격을 탈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언론으로서 상업적인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성언론과 차별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변화를 위해 계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공정하고 잘 만든 언론도 독자가 읽지 않고 시청자가 듣고 보지 않는 언론은 무용지물인 것이다. 따라서 대학언론에서 변화하는 학내의 구성원에 맞추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는 것은 더 없이 중요한 일이다. 이 점에서 그리 좋은 일은 아니지만, 조선일보가 극우보수적인 신문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가장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자의 변화에 따라 얼마나 그 모습을 바꾸어 가는가.

한편, 대학언론의 발전을 위해서는 편집권의 자유, 재정확보 등 많은 과제가 산재해 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대학언론의 변화는 걸모습만 번지르르한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언론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대학언론의 문제를 반성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와 대학 언론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